

2026 9평 국어 분석

【요약】 수능국어연구에서는 5가지 관계로 제시문을 분석하고, 선지에 어떤 기믹이 쓰였는지 설명한다. 기믹이란 주로 관심을 끌거나 매력을 높이기 위해 고안된 장치 또는 아이디어를 뜻하는데, 출제 측면에서 출제자의 상술, 함정 등을 가장 잘 나타내는 용어라 생각한다. 또한 기출의 모든 내용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출제 측면에서 주목할 가치가 있는 부분만을 탐색한다. 텍스트만으로 표상을 전달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필요하다면 도식을 제시하기도 할 것이다.

【주요어】 type-of, part-of, date-of, cause-of, instance-o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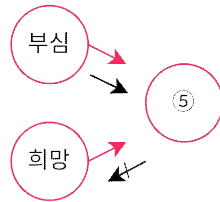
1. 『경사』, 『달빛 체질』

2026 9평에서 분석할 가치가 있는 것은 24번 뿐이다. 나머지는 관심 없다. 먼저 “틀린 곳은 하나만으로 족하다.” 원칙에 따라야 한다. 24번 문항 ⑤에서 ‘눈이 부신 속성’을 컷내는 것만으로 판단이 종결된다. 태양과 달빛이 이항대립적이고 속성은 각각 눈부심과 아늑함이다. 출제자의 무기 중 하나인 미스매치이다. 수험생은 위 내용만 챙겨가면 된다.

(나)

내 조상은 뜨겁고 부신
태양 체질이 나이였다. 내 조상은
뒤안처럼 아늑하고 조용한 달의 숭배자였다.

⑤ (가)에서 ‘길’에 놓인 ‘자갈’을 ‘빛나는’ 것으로, (나)에서 ‘달빛’을 ‘밝은’ 것으로 표현한 것은, 각각 눈이 부신 속성을 가졌다는 유사성을 바탕으로 연관 지어, 희망을 추구하는 화자의 내적 지향을 드러낸 것이겠군.



〈그림 1〉 보충도식: 미스매치만으로 ⑤가 틀리니 희망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없음.

이제부터는 지적유희의 영역이다. {눈이 부신 속성}에 관련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문제는 {희망} 내지는 {희망을 추구하는 화자의 내적 지향}에서 발생한다. 나는 이를 분석하기 위해 여러 논문을 찾았다. 그 과정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이수익에 관한 논

문의 경우 고작 한 편밖에 없었다. 박목월의 관한 논문은 많았다. 하지만 『경사』에 대한 코멘트는 찾기 힘들었다. 기묘하게도 24번 <보기>는 시 내용 자체에 대한 해석이 아닌 문학 개념을, 25번 자료는 시의 컨셉을 간단하게 소개하는 것으로 끝난다. 이는 레퍼런스의 부재에서 기인할 것이 아닐까? 한편 논문을 참고한 결과, 이수익과 박목월의 대한 분석 간 공통점이 있다. 시 세계를 초기시, 중기시, 후기시로 나누고 있다는 점이다. 각 시기마다 특징이 고유하다.

본 연구는 이수익의 시집 11권에 실린 작품을 대상으로 하고, 초기시, 중기시, 후기시로 나누어 각 시기별로 관통하고 있는 시적 상상력을 정신분석학 이론으로 원용하여 분석한다.

먼저 박목월 시세계의 현대성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그의 문단 활동을 초기, 중기, 후기의 3기로 나누었다.

그 중 『경사』는 중기시에 해당하며 시집 <청담>에 실린 시 중 한 편이다. 시기별 특징은 다음과 같다.

박목월의 시 세계는 자연은 관념적으로 형상화한 <청록집>, <산도화>의 초기에서 각박한 현실과 생활을 소재로 쓴 <난·기타>, <청담>의 중기를 거쳐, 형이상학적 존재 탐구에 매진한 <경상도의 가랑잎> 이후의 시기로 나아간다.

박목월의 초기시에 등장하는 시적 공간인 ‘산’은 현실 세계와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다. 박목월은 현실의 괴로움에서 벗어나 마음의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가상적인 공간으로 자연을 설정하고 이를 ‘산’, ‘절’ 등의 소재를 통해 형상화하고 있다.…(중략) 마음의 안식처로서의 신비로운 자연을 노래하던 박목월의 시 세계는 한국전쟁을 겪고 난 후 달라졌다. 박목월 중기시의 특징은 일상적인 세계로의 하산이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다.…(중략) 중기시부터 보여주었던 현실에 대한 부정적인 형상화, 부정적인 현실에 대한 인고와 순응으로부터 벗어나 삶에 대한 긍정이라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중기시

에 나타난 나자아 고달픈 삶의 무게에 버거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후기시에 나타난 자아는 일상적인 삶 속에서 일상의 사건들을 내면화하고 해석하여 자기 나름의 의미를 발견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목월의 시 세계는 자연-종교로의 큰 주제로 이전하는 과정에 인간 박영종의 '생활'이 난입한 것인 듯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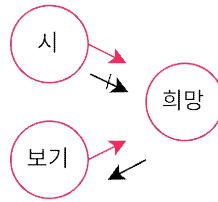
그렇다면 『경사』는 중기시에 포함되고, 중기시의 특징은 암울한 현실에 대한 순응이므로 (가)의 화자가 희망을 추구한다고는 볼 수 없는 듯 보인다. 과연 그럴까? 주목해야 할 것은 박목월 시 세계에 대한 해석에는 견해들이 충돌하고 있다는 것이다.

<청담>은 자연을 소재로 한 초기 시와는 달리 가족과 사회 현실에서 소재를 찾아 현실의 중압감에 대처하는 외롭고 연약한 자아를 드러내고 있다. <청담>은 '후기'에서 박목월 스스로 밝혔듯이 아버지, 가정, 연민 등의 정서가 두드러지는 작품들로 조화와 화해의 시적 세계를 지향하고 있다.

지상(세계)과 하늘(신)의 이항 대립적 구도에서 벗어나 이 둘의 마주닿음에 대하여 노래하는 시가 『경사』이다. 시에서 시적 자아는 유자나무에 유자가 열리고 굴나무에 굴이 열리는 “지순한 길”을 걷는다. 지순하게 살아가도록 '이끄는' 이 삶의 길은 “바다”를 향하여 완만하게 기울어 있으며, 그 길을 시적 자아는 두려움 없이 걷고 있다. 앞서 간략히 살펴본 바 있듯이 박목월의 초기 시에서 하염없이 잦아들고 하강하는 이미지는 대체로 이상향에서 속세로 전락하는, 그리하여 갈수록 이상향과 멀어지는 형벌에 처한 듯한 힘겨운(수직적 구도)을 끌어안고 있다. 그러나 이 시에서 시적 자아가 느끼는 “이 신비스러운 경사감”에는 그러한 '전락'의 아픔이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시적 자아의 눈에 비친 바다의 모습이다. 그에게 바다는 지상이 하늘과 맞닿는, “신비스러운 수평” 그 자체이다. 그곳으로 다가설수록 '지상/하늘'의 수직적이며 절대적인 거리감이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대신 지상과 하늘의 한없는 '가까움'이 눈앞에 환히 펼쳐진다. 즉 이 시에서 바다의 수평선은, 지상과 하늘이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언제나 맞닿아 있었음

을, 본질적인 측면에서 지상의 모든 존재는 저 하늘과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음을 상기시키는 시적 표상이다.

그렇다면 (나)의 화자는 희망을 추구한다고 볼 수 있는가? 앞서 말했듯이 시의 내용을 설명하는 <보기>가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보기>가 주어지지 않는 한 {희망을 파악하는 데에 어려움이 수반될 것이라 생각한다.



<그림 2> 보충도식: 총괄 여지가 있는 해석들이 존재하니 <보기>가 주어져야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적유희 중에서도 지적유희를 즐기고자 한다. 여기서부터는 다른 어떤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내 생각 프로세스이다.

주체가 어떤 것에 대해 긍정적 감정을 가지고 최소한의 행위 성향을 보유하고 있을 때, 's는 p를 희망한다'에 대한 온톨로지적 분석은 다음과 같다.

“희망의 존재론적 요건에는 미래 지향성, 불확실성, 간극이 포함된다. 미래 지향성은 시간성에 관한 것이고, 불확실성은 가능성에 관한 것이며, 간극은 현실과 목표의 차이를 의미한다.”

- 월 가 -

<미래 지향성> 대상은 현재가 아니라 미래적인 사건이어야 한다. 지금 여기에서 이미 확정된 것이라면 희망이 아니라 소유 내지는

현상의 기술이다.

<불확실성> 대상이 불가능하지 않아야 한다. 희망의 대상을 p 라 하고 주체의 신념 수준을 확률 함수 P 를 이용하여 나타냈을 때 $0 < P(p) < 1$ 이어야 불확실성(개연성)이 있다고 말한다. 신념 수준이 0이면 절망, 1에 가까워질수록 희망은 단순한 기대나 예상으로 기운다.

<간극> 현재와 희망 대상 사이에 간극이 있어야 한다. 이때 현재에서 희망으로 가는 경로나 수단이 있으면 상대적으로 강한 희망이다. 반면 세계가 전적으로 닫혀있는 것은 아니지만 구체적인 경로를 모른다면 상대적으로 약한 희망이다.

위 논제에 따라 분석을 해보면, 최종적으로는 (가)의 화자는 희망을 추구한다고 보기에는 어렵거나 약한 희망을 가진다고 볼 수 있으며, (나)의 화자는 희망을 추구한다고 볼 수 있다.

먼저 (가)의 특징인 묘사에서는 현재적 체험이 드러난다. 따라서 달성해야 할 미래 상태 p 가 분명하지 않아 <미래 지향성>을 충족하지 않는다. <불확실성>은 사실 상 1이거나 1에 매우 가깝다. <간극>에 대해서는 “무거운 젊음의 젖은 구도를 벗은” 뒤의 가벼움 이기에 결핍은 이미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가)는 관대하게 바라보아도 기껏해야 현재 상태가 유지되길 바라는 약한 희망을 드러낼 뿐이다. 이조차도 <보기>가 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나)에서는 “끝없이 야행의 길을 더듬고 싶은”을 통해 <미래 지향성>을 드러낸다. 또한 자신이 부여받은 조상의 피에 대해서는 “나를 끌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라는 추정을 하고 있다. “그렇다”와 같은 확언이 아니라는 점에서 화자는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낮은 달의 피를 물려받은 화자에게도 장애물이란 점에서 현실과 목표 간 <간극>이 있고 야행의 길은 이에 대한 경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나)의 화자는 희

망을 추구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달의 피가 본래 자신의 것이 아닌 조상에게 이어받은 것이고, 화자는 인력에 의해 끌려가는, 즉 화자 자신이 원인이 아니라, 그러한 내용이 <보기>에 주어지면 해석은 한 층 더 복잡해지긴 하나 논의는 여기서 끝마치려 한다.